

활짝 웃은 여야 원내대표, 추경 처리엔 온도차

민주 “추경, 정쟁의 불모 안돼…예결위 즉각 구성하자”

국힘 “신임 지도부 조속 구성…추경, 선심성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추경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 민생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내 현안들도 합의·협치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추경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으로 이 원칙 하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정권을 잃었다고 민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정쟁의 불모로 삼지 말고 예결위 등을 즉시 구성해 국회 심의 착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비공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19일 국무회의 상정 전까지도 실무 논의를 할 예정이며 우리 당의 원칙은 보편 지원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내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로 친운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을 보이도록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자체에 대해선 큰 틀의 반대는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모성이나 선심성이나 아니면 진짜 국민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집값은 불안하고 경제가 상당히 문제 아니겠느냐”며 “저희도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정해가며 가장 빨리 정해야 할 것이 추경과 부동산”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나 공금했는데 올해 배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전용해 마련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부산·울산·경남에 투자하는 재원을 깎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이재명식 경제학이나”며 “결국 현금을 살포하며 미래 투자를 포기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합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당 혁신위 설치”

첫 원내대책회의의 주제…원내 지도부 구성, 지역 계파 초월 ‘관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혁신 드라이브 시동을 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송 원내대표의 첫 회의 메시지는 수도권에 방점이 찍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전략적으로 타겟팅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서을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선 패배 후 당내 구(舊)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수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단합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구성될 원내 지도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탕평인사·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우리 당 역량이 총결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과 친운(친운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송 원내대표가 지역과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선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할 원내수석부대표에 비(非)영남 재산 의원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송 원내대표가 선출 이튿날부터 혁신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이지만, 혁신위 구성까지는 순탄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등의 개혁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과 혁신 방안과 방향 등을 두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위도 김 위원장이 반대할 경우 당장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구성에 대해 “원내대표와 위원장 간 상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닥을 잡겠다”며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개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혁신위에서 (개혁안을) 포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제주항공 참사 의혹 확실히 규명”

특별법 시행 앞 유가족 만남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곧 시행되는 특별법에 유가족분들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17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

와 면담을 갖고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정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지원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이어지고, 유가족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권영진 위원장, 이수진 간사 등도 참석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청래 “박찬대도 민주 당권 도전 가능성”

유튜브 ‘뉴스공장’ 출연…“친분 두터워 누가 돼든 상관없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와 만나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밝히며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 (박 전 원내대표와) 너무 친하다”며 “박 의원이 당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합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며 “그래서 3년

전에 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 대표를 해야지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랑 일했던 시기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시기였고 성과들이 또 많았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처음으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표를 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이번 주중, 특히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 이후에 출마표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회에서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